

대화분석과 중국어 교재 분석

— 말하기 교재를 중심으로*

朴贊旭**

◁ 목 차 ▷

- I. 서론
 - II. 본론
 - 1. 소개: 대화분석의 정의와 발견
 - 2. 분석: 대화분석 대입의 효용성
 - 3. 토론: 대화분석과 말하기 교재
 - III. 결론
-

I. 서론

본 논문은 대화분석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그것의 방법론과 연구결과가 중국어 말하기 교재의 수정과 구성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근래 들어 학제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기존의 연구 풍토였다면 요즘은 다분야 간 교차 또는 공동 연구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자신의 분야가 아니라고 등을 돌렸거나 필요성을 느꼈으면서도 다시 무언가를 습득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 했던데 반해 지금은, 전산언어학, 사회언어학, 외국어로서의 제 2 언어교육과 같은 분야처럼, 기존의 현상에 대해 다른 해석을 부여하거나 등한시 했던 현상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다. 더 나아가 현재는 하나의 학제간 연구가 또 다른 학제간 연구와 결합하여 연구결과의 상승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전산언어학의 코퍼스구축은 사회언어학 분야의 자연담화 연구에 기술적인 영향을 주었고 외국어로서의 제 2언어교육의 비원어민화자 코퍼스구축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또 사회언어학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개념이 외국어로서의 제 2언어교육의 기본적인 목표 설정에 영향을 준 것도 그 예이다.

이와 같은 학제간 연구 분야 중에서 본고는 대화분석 방법론을 도입하여 중국어 교육을 성찰하고자 한다. 그 연원을 사회학에 두고 있음에도 대화분석 방법론은 현재 교재분석, 외국어로서의 제 2언어학습자 담화분석, 교수자—학습자 간 상호작용 등과 같은 외국어로서의 제 2언어교육 분야는 물론, 동태어법(Emergent grammar), 구어어법, 언어변화와 상호작용 등과 같은 언어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분석의 틀로서 그리고 해석의 결정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화분석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으로서 언어상호작용(talk-in-interaction)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데 있다.¹⁾ 일반대화는 물론, 인터뷰, 상담 등 발화에 의한 두(또는 그 이상의) 화자 간의 발화 생산물을 대상으로, 대화분석은 자연 발생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참여자들이 발화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관찰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행위의 원형 또는 행위의 관습을 발견한다. 본고는 대화분석의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그것을 중국어 교재분석 방면에 대입할 것인데, 교재분석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교재가 교육의 일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담당하는 기능이 매우 크다는데 연유한다.

외국어로서의 제 2언어교육의 최종 목표는 교수자의 도움 없이도 학습자들이 원어민과 상호 소통하는데 있다. 그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단지 원어민이 사용하는 표현만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배양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 원어민의 발화행위와 그것의 운용관습을 익히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배양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 목표를 모두 공유하고 있음에도, 각각의 중

1) Hutchby & Wooffitt 《Conversation Analysis: Principles, Practices and Applications》(PolityPress, 1998), 14쪽 참조.

국어 교재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충실하게 기능하고 있을까? 학습자들로 하여금 소통능력을 배양하게끔 그에 맞는 상호작용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기 위해 본고는 대화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중국어 교재의 불충분한 점을 짚어보고 그것의 수정과 구성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론의 제 1절에서는 대화분석 방법론에 대한 소개를 한다. 제 2절에서는 한국의 중국어 교재연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화분석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 3절에서는 제 1절에서 소개한 대화분석의 틀을 도입하여 현행 중국어 교재들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정방안을 제시한다. 제 4절에서는 문제점의 발생 원인을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구성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한다.

II. 본론

1. 소개: 대화분석의 정의와 발견

이 부분에서는 대화분석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살펴보고 대화분석에서 자연발화를 대상으로 발견한 말차례 갖기 규칙(turn-taking)과 두 연속체 구조-인접쌍(adjacency pairs)과 선호구조(preference)-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²⁾ 우선 대화분석의 정의와 연구대상부터 살펴보자.

1) 대화분석의 정의와 연구대상

대화분석은 언어 상호작용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하는 분야이다.³⁾ ‘Conv

2) 대화분석의 발견으로서 ‘수정(repairs)’도 있지만 교재에서는 발화 도중 스스로 수정한 뒤 다시 발화한다든지 타인의 말을 수정해 준다든지 하는 예가 거의 보이지 않으므로 소개를 생략하고자 한다. 교육에 대한 ‘수정’의 대입은 외국어로서의 제 2언어 학습자담화 분석에서 가능할 것이다(박용예 <대화분석과 영어교육>; 양혜순, 이성범, 이창봉 엮음 <<영어학의 최근 논점>> 서울, 한국문화사, 2005, 345쪽-353쪽 참조).

ersation Analysis'이란 술어에 이미 대화(conversation)란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대화분석은 대화라는, 화자 간에 이루어진 발화물 자체 그 이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대화분석 방법론의 태동과 연관이 있는데, 당시에는 주어진 문화적 사회적 상황이 개인의 행위수행을 지배한다고 생각한 구조사회학(structural sociology)이 대세를 이루고 있던 시기였다. 개인의 행위는 수행 전부터 이미 힘과 통제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⁴⁾ 하지만 Sack를 비롯한 학자들은 이와 의견을 달리했다. 그들은 상호작용의 참여자들이, 구조화된 행위가 아닌, 지금, 누구와, 어떤 목적을 성취하느냐에 따라 적절한 행위로써 맥락을 조율하고 또 조직해간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화분석학자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언어 상호작용(naturally occurring talk-in-interaction)'을 녹음하고 전사하였다.⁵⁾ 발화'할' 것을 직관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배제하고, 전사자료, 즉 발화'한' 것을 바탕으로, 참여자가 행위 연속체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반응하는가를 관찰하였다. 이에 대화분석은 비록 '언어'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궁극적인 분석대상은 언어를 통해 수행하는 '행위'에 있다. 대화 자체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조직된 행위 구조를 관찰하면서, 대화분석자들은 대화 시 발생하는 쉼, 머뭇거림, 끼어들기 등도 상호작용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화분석자들의 연구대상을 대화에 국한시키지 않고 '언어 상호작용(talk-in-interaction)'으로 확대시킨 것은 이러한 배경에 연유한다.

2) 대화분석에서의 발견

① 말차례 갖기(turn-taking)

3) Hutchby & Wooffitt 《Conversation Analysis: Principles, Practices and Applications》(PolityPress, 1998), 13쪽 참조.

4) 이원표 《담화분석: 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례》(서울, 한국문화사, 2001), 8-9쪽 참조.

5) Hutchby & Wooffitt 《Conversation Analysis: Principles, Practices and Applications》(PolityPress, 1998), 14쪽 참조.

대화분석에서는 무질서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대화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고 여긴다. 대화에는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묵인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일상을 되돌아 봤을 때도,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화 시 말이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 먼저 얘기하면 이 지점에서 내가 할 테니까 그다음 이 지점에서 내가 해'라고 대화 시작 전에 논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아주 순조롭게 서로의 말을 주고받는다. 이는 분명 Sack, Schegloff & Jefferson(1974)의 주장대로 발화권을 교체하는 모종의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스템을 말차례 갖기 규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말차례(turn)란 한 화자가 발화를 끝내고 청자로 역할이 바뀌기 전까지 말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⁶⁾ 이 시스템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말차례 구성 요소(turn-constructive component)로서 문장, 절, 구, 어휘 등의 말차례를 구성할 수 있는 언어 형식을 가리킨다. 말차례는 주로 위와 같은 언어형식의 말미부분에서 교체가 이루어지며 교체가 이루어지는 지점을 추이적정지점(TRP: transition-relevance place)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차례 배분 요소(turn-allocation component)로서 일종의 발화권 배분 기술을 의미하는데, 그에 따른 세부 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⁷⁾

- (1) 어떤 말차례에서든지 말차례 구성단위의 첫 번째 추이적정지점에서:
 - (a) 현재의 말차례가 '현 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한다'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경우 지명된 참여자는 발화권을 갖고 다음 말차례를 취할 의무를 진다; 다른 화자들은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못하며 전환이 일어난다.
 - (b) 현재의 말차례가 '현 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한다'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누구 하나가 주동적으로 발화권을 취할 수 있다. 필수는 아니며, 발화개시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말차례를 취하며 전환이 일어난다.
 - (c) 현재의 말차례가 '현 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한다'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주동적으로 발화권을 취하는 사람이 없을 때 현 화자

6) 박성현 《한국어 대화 화제와 말차례 체계》(서울, 집문당, 2008), 8쪽 참조.

7) Sack, Schegloff & Jefferson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 1974, 704쪽.

는 말차레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는 아니다.

- (2) 첫 번째 말차레 구성단위의 첫 번째 추이적정지점에서, 1a도 일어나지 않고 1b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 1c와 같이 현 화자가 말차레를 지속한다. a에서 c까지의 규칙은 다음 추이적정지점에서 재적용되며 그 다음 지점에서도 전환이 유효할 때까지 환원적이다.

우리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대화를 진행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위와 같은 질서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말차레를 갖게 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말차레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쟁취한다. 이러한 것은 어느 사회에나 적용시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대화의 질서이며, 토론이나 언쟁,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인터뷰나 환자와 의사간의 상담 등에서는 그것의 변이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다. 말차레 갖기 규칙을 발견한 이후, 언어학자들은 말차레가 단순히 문장, 절, 구 등 통사적인 요소들에 의해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하고 말차레가 어떻게 구성되며 또 그것의 전이가 무엇을 근거로 일어나는지 관찰하는데, Ford & Thompson(1996)은 그 결과로서 'TCU(turn constructional unit)'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된다. 말차레 구성 요소는 통사적인 입장에서만 설명되었을 뿐, 실제 대화를 분석할 때 보면 말차레의 전환은 통사적, 의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억양, 시선, 제스처 등의 화용적 요인들까지 화자들이 인식하였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② 연속체 구조(sequence-organization)

문장(sentence)이나 발화(utterance)는 대화분석에서 특정 맥락에 의해 결정된 일종의 행위로 간주된다.⁸⁾ 문장, 절, 구, 단어 등이 통사적, 의미적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상호작용 속에서 화자가 청자를 향해 행하는 행위로 해석되는 것이다. 어떤 언어적 형식을 이용하든지 선행화자의 발화행위는 후행화자의 발화행위를 이끌어 내며 또 후행화자는 선행화자의 발화에 적절한 반응을 하며 상호작용을 조직해 나간다. 우리의 일상에 비추어 봐도, 선행화자가 '질

8) Goodwin & Heritage <Conversation Analysi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9, 1990, 287쪽 참조.

문'을 했다면 후행화자는 '대답'을, '인사'를 했다면 그에 맞는 '인사'를, 또 '요구'를 했다면 '수락 또는 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은 이렇게 선행 말차례 속의 행위가 후행 말차례 속의 행위와 국소적으로 대응하며 구성되는데, 이러한 대응에 의해 구성된 말차례 쌍을 연속체라고 부른다. 이러한 연속체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참여자 간의 행위 조직인 인접쌍(adjacency pairs)⁹⁾과 후행화자의 행위는 가급적 선행화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행해진다는 선호구조(preference)가 그것이다. 우선 인접쌍의 특징부터 살펴보자.¹⁰⁾

(1) 인접쌍 구성의 기본 특징:

- 1-1) 두 개의 발화로 구성된다.
- 1-2) 두 발화는 인접해 있다.
- 1-3) 두 발화는 각기 다른 화자에 의해 생산된다.
- 1-4) 두 발화가 하나의 유형화된 쌍(pair type)을 구성한다.
- 1-5) 유형화된 쌍은 두 화자에 의해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2) 인접쌍 조직의 기본 규칙: 선행화자가 (유형화된)행위쌍의 일부를 생산하고 추이적정지점에서 발화를 멈추면 후행화자는 그 행위쌍의 나머지 부분을 생산해야 한다.

인접쌍 개념이 출현한 이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수정이 뒤따랐는데, 그 중에서도 1-2)에서의 '인접'은 선행화자의 행위에 '후행화자의 행위가 바로 뒤따라야 한다'에서 '가까운 시간 내에 후행화자의 행위가 응해져야 한다'는 개념으로 다소 유연해졌다. 이는 아래와 같이 확장된 연속체(expansion sequence)로 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Merritt(1976:333)¹¹⁾

A: May I have a bottle of Mich?

[질문1]

9) '인접대귀'라고도 번역하는데(김해연 2000:442) 여기서는 편의상 '인접쌍'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10) Schegloff, Sacks <Opening Up Closings>: 《Semiotica》 VIII.4, 1973, 295-296쪽 참조.

11) Levinson 저, 이익환 등 역 《Pragmatics(화용론)》(서울, 한신문화사, 1992), 369쪽.

B: Are you twenty one? [질문2]
 A: No. [대답2]
 B: No. [대답1]
 (A: Mich 한 병 주실래요?
 B: 21살 인가요?
 A: 아니요.
 B: 그럼 안 됩니다.)

초기의 인접쌍 개념에 기대면, [대답1]이 [질문1]에 뒤따라야 하는데 또 다른 연속체([질문2]-[대답2])가 삽입되면서 두 행위의 인접성은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대화 속에는 위와 같은 예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또 삽입 연속체에도 불구하고 '[질문1]-[대답1]'쌍에 인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인접쌍은 선행 행위, 그리고 그것과의 관련성에 따라 조건지어진 후행행위로 구성된 연속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¹²⁾

다음으로 선호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대화는 선행화자의 발화에 대해 후행화자가 대응하며 진행된다. 이 때 후행화자는 선행화자에 대해 일종의 선택권을 갖는데, 예를 들면, '인사'에는 '인사'로 대응하지만 '요청'에는 '수락'과 '거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대응할 수 있고 '칭찬'에도 '접수'와 '거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화자는 '제안'을 하면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수용'-을 기대하고 행하지 '거절'을 기대하고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요청'에도 '수용'을 기대하고 '질문'에도 '(예견된)대답'을 기대하지 그에 반하는 후행화자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다. 후행화자는 이렇듯, 비록 행위에 대한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화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발화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후행화자의 행위에도 일종의 선호되는 경향이 존재하게 된다. '선호구조'는 이와 같이 유형화된 행위쌍 중에서도 선호되는 행위와 구성된 인접쌍을 가리킨다. 선호되는 행위를 무표적 행위로 비선호되는 행위를 유표적 행위로 상징하는데¹³⁾, 이는 선호되는 행위와 인접쌍을 구성할 때에는

12) Levinson 저, 이익환 등 역 《Pragmatics(화용론)》(서울, 한신문화사, 1992), 372쪽 참조.

13) Levinson 저, 이익환 등 역 《Pragmatics(화용론)》(서울, 한신문화사, 1992),

부가적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데 반해 비선호되는 행위와 인접쌍을 구성할 때에는 자신의 말차례 내에 '설명', '해명' 등의 또 다른 부가적 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선호조직과 관련된 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다.

표.1 후행화자의 선호적 행위와 비선호적 행위 유형¹⁴⁾

선행행위	후행행위	
	선호적	비선호적
요청	수용	거절
제의/초대	수용	거절
평가	동의	반대
질문	예견된 대답	예견 못한 대답/부답
비난	부인	인정

2. 분석: 대화분석 대입의 효용성

1) 중국어교재 연구 및 현행 교재의 문제점

앞서 우리는 대화분석의 정의와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대화분석은 교재분석에 적절한 근거와 지향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본 소절에서는 교재분석에 대한 대화분석의 효용성을 살펴볼 것인데, 먼저 그간의 교재연구 및 현행 교재의 문제점을 대략적으로 짚어보고 뒤이어 그에 대한 예시와 대안을 들어 보이고자 한다.

중국어 교재에 대한 성찰은 한국어나 영어교재에 대한 연구에 비해 그리고 중국어연구의 발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어교육 저널지 <중국어교육과 연구(2005~2009)>와 중국언어학 저널지 <중국언어연구(2000~2010)>에 수록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그에 대한 현상을 대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본고의 통계에 의하면 '교재/교과서'라는 핵심키워드를

410쪽 참조.

14) Levinson 저, 이익환 등 역 <<Pragmatics(화용론)>>(서울, 한신문화사, 1992), 410쪽.

제목으로 내세운 결과로서 〈중국어교육과 연구〉에 2편(박찬욱 2006; 노경옥 2008), 〈중국어언어연구〉에 3편(張科 2003; 李喜甲 2006a, 2006b) 하여 총 5편이 수록되어 있다.¹⁵⁾ 그 중 한 편은 번역물이고 나머지 네 편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편중된 연구물도 한·미 교과서 비교, 한국 교과서간 비교, 한어병음 표기 방안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다시, 주요 논문검색 사이트-DBPIA, KISS-를 통해 '중국어 교재'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총 11편을 검색할 수 있었는데(유기수 1996; 연동숙 2000; 김윤경 2002; 肖奚强 2003; 배재석, 윤창준 2004; 이영월 2006; 류다리 2006; 약휘, 이무미 2006; 박찬욱 2009; 정현주, 이상미 2009; 이승연 2009),¹⁶⁾ 이 중에서 현재의 중국어교육과 관련성이 먼 2편(약휘, 이무미 2006; 이승연 2009)을 제외하면 9편에 불과했다. 이들 성과 역시도 중국의 외국인용 중국어 교재에 대한 소개 및 고찰, 행위구조 중심의 교재분석, 작문교재 설계, 발음교육, 어법문형,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 간 비교, 교재집필, 문화교육 등 다양한 방면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학의 다양한

- 15) ① 박찬욱 〈중국어 교재 분석을 통한 요구 책략 고찰〉: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4호, 2006; ② 노경옥 〈한미 고등학교 중국어 교재 비교연구〉: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8호, 2008; ③ 張科 〈兩套韓國高中漢語課本的比較分析及其在教學中的效用〉: 《中國言語研究》, 第16輯, 2003; ④ 李喜甲 〈중등학교 중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지명의 한어병음 표기 고찰〉: 《中國言語研究》, 第22輯, 2006; ⑤ 李喜甲 〈동빈이합사(動賓離合詞)의 한어병음(漢語併音) 표기에 대한 재론-중등학교 중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中國言語研究》, 第23輯, 2006.
- 16) ① 유기수 〈중국에서 출판된 외국인용 중국어 교재의 기본 문법 사항 연구〉: 《中國研究》 제18권, 1996; ② 연동숙 〈중국어 교재와 문화교육〉: 《中國研究》 제25권, 2000; ③ 김윤경 〈중국에서의 외국인용 중국어 교육과 교재〉: 《이중언어학》 제20호, 2002; ④ 肖奚强 〈高級漢語教材編寫問題〉: 《中國語文學誌》 第13輯, 2003; ⑤ 배재석, 윤창준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의 어의, 형태론적 비교연구-초급중국어 교재에 수록된 한자어의 계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25호, 2004; ⑥ 이영월 〈대학중국어교재의 발음교육 분석〉: 《중국어학연구》 제38집, 2006; ⑦ 류다리 〈교재 《신공략중국어(초급편)》 비교문형 제시에 관한 고찰〉: 《中國語文學》 第47輯, 2006; ⑧ 약휘, 이무미 〈중국어 교과서의 서, 발문에 나타난 조선시대 언어교육의식〉: 《한국어문학연구》 제46집, 2006; ⑨ 박찬욱 〈"인접쌍" 개념을 이용한 중국어 말하기교재 분석: "칭찬-반응" 구조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3권 제2호, 2009; ⑩ 정현주, 이상미 〈인지부하이론을 적용한 초급 중국어 작문교재 설계 방략 연구〉: 《중국어학연구》 제49집, 2009; ⑪ 이승연 〈조선말 한학서 〈화음계몽〉의 장면, 대화 분석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50호, 2009.

방면에 대해 고찰을 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肖奚强(2003)과 박찬욱(2009)을 제외하고는 발음, 어법, 어휘, 문화 등 언어지식적인 면에 치중해 있다는 면에서 향후, 언어 기능적인 면에서의 중국어 교재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기능적인 면에서의 중국어 교재 분석은 무엇을 바탕으로 행해져야 할까? 이에 대한 논의는 Tao(2005)와 박찬욱(2009)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연구물은 모두 대화분석 방법론에 기대어 '상호작용에 의한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주제로 교재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Tao(2005)는 자연담화와 의 비교를 통해서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고 주제의 흐름, 지속(contiuation), 반응어(interactive token), 지연과 수정(delays and repairs), 맥락(context) 등 교재에서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 중시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또 박찬욱(2009)은 교재에서 보이는 '칭찬'행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자연담화 연구결과와 주제면에서 비교한 뒤 교재의 '칭찬-반응'쌍이 실제의 대화관습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예들도 Tao(2005)와 박찬욱(2009)을 참고하고 지지할 것인데, 원어민의 상호작용 규칙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대화분석 방법론은 교재의 기능적인 면, 특히 '말하기'방면의 성찰 근거를 제시해 주고 그 결과는 다시 교재의 구성과 수정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분석 시각에서 본 중국어 교재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상호작용 구조조직상의 문제이다. 본론의 제 1장에 기대어 봤을 때 실제 발화자들이 공유하는 말차례 갖기 규칙이나 인접쌍, 선호조직이 교재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상호작용의 시작과 종료상의 문제이다. 대화의 개시와 종료가 실제와 비교해 자연성이 떨어져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그에 포함된다. 셋째, 상호작용에 따른 언어현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好', '我不知道', '我覺得', '就是說' 등 그간 부가어나 말버릇으로 치부되어 왔던 표현들이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는 언어의 의미전달 그 이상의 기능을 한다든지(Miracle 1992: 陶紅印 2000: Biq 2001: Huang 2003: 方梅2005: 朴贊旭 2005), '因為...所以~'와 같은 연결어의 원형구조가 상호작용 과정 중

- 2 B: 怎麼說呢? 反正一個人一個樣, 每個人有每個人的活法。我們這些人, 工作不一樣, 歲數不一樣, 興趣愛好自然也不一樣。就拿我來說吧, 我這個人好靜不好動, 甚麼歌廳、舞廳、臺球廳從來不去。我沒孩子, 愛人出國進修去了, 現在就我一個人在家, 沒事的時候, 就喜歡看書, 中文的、外文的, 甚麼書都看, 一看就是幾個小時。我不太愛交際, 書就是我生活中的朋友。
- 3 C: 我跟她可完全不一樣, 就像俗話裏說的: “蘿卜青菜, 各有所愛。” 我在一家中外合資的公司上班, 平時工作很累, 精神上也很緊張。要知道, 在這樣的公司工作, 不能出一點差錯, 否則會被“炒魷魚”的。我到這兒來學英語, 也是爲了提高我的英語水平, 把工作做得更好。所以, 每天下班以後, 要是沒甚麼事, 我就想找個地方輕鬆輕鬆, 或者發泄一下兒。我最喜歡到“迪廳”去“蹦迪”, 在那兒可以忘掉所有的煩惱, 甚至忘了自己, 好像換了個人似的, 回家以後睡覺特別香, 第二天上班精神也好。不過, 我妻子不願意我到那樣的地方去, 非說那兒不是正經人去的地方, 跟我吵了好幾次了。
- …… [中級漢語口語, 22쪽]

예(2)는 토크쇼의 일부이다. 토크쇼는 방송이라는 특성상 사회자(H)가 주도적으로 게스트(G)에게 말차례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게스트는 부여된 말차례에 준해 발화만 할 뿐, 반대로, 사회자에게 말차례를 넘겨 자신의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토크쇼는 일상대화보다 추이적정지점에서의 말차례 쟁취과정이 적기 때문에, 일단 확보된 말차례에서 게스트는 상대적으로 긴 발화시간을 소유할 수 있다. 예(2)에서도 게스트는 부여받은 말차례에서 긴 발화시간을 확보하고 자신의 연기변화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기호에서 볼 수 있듯 서술은 계속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회자는 중간 중간 상대에 대한 대응어-‘嗯’, ‘是是是’ 또는 정리-‘那就是說, 演技好’를 해 줌으로써 대화를 함께 조직해 가고 있다. 그러나 예(3)은 괄호 안의 ‘聊天兒’로부터 알 수 있듯이 예(2)보다는 덜 통제된 상태에서 5명(老師, 學生甲, 乙, 丙, 丁)이 진행되는 대화구성임에도 상대화자들의 아무런 반응이 출현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화의 구성은 한 명의 긴 발화시간으로 인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답소하기’보다는 ‘발표하기’의 인상을 줄 수 있으며, 더 중요한 점은 긴

예(4)는 ‘칭찬’을 주제로 한 과의 한 단락이다. ‘칭찬’이라는 행위는 표.1에서 보이는 행위들과 다르게 수혜자, 즉 청자에게 ‘접수’나 ‘거절’을 강요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의 ‘반응’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만약 후행화자의 반응이 뒤이어 표현되지 않을 경우 호의에 대한 답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례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4)를 보면, 수혜자인 B는 A의 ‘眞讓人佩服’란 칭찬에서도 그리고 ‘太不簡單了’란 칭찬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예(4)에서 가상으로 삽입된 4행과 7행을 제외하면 교재에서 제시된 대화문은 실질적으로 총 5행인데, 이 5행 속에는 해당 과의 주제와 관련된 ‘칭찬’만 제시되어 있을 뿐 그와 함께 호응되어야 할 ‘반응’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¹⁹⁾ 이렇듯, 인접쌍을 염두에 두지 못한 대화문 구성은 자칫 학습자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칭찬하는 ‘표현’만 학습케 할 뿐 적절하게 반응하는 ‘행위’ 학습을 소홀케 할 우려가 있다. 아래 하나의 예문을 더 살펴보자.

- (5) ……
- 1 A: (坐在沙發上削水果)她呀, 學習起來是拼命地學, 玩兒起來又是拼命地玩兒。
- 2 B: (給林木續茶)你的漢語挺地道, 沒有洋腔洋調, 來這兒幾年, 習慣這兒的生活了吧?
- 3 C: (?) 剛開始可真不適應。早上實在爬不起來, 這兒上課的時間太早, 可留學生們又都是夜貓子。現在我也和中國人一樣, 中午總要睡會兒覺, 要不然下午就昏昏沉沉的, 干甚麼都沒有精神。
- ……
- (1 A: (쇼파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이 사람은 공부도 그렇고 놀기도 그렇고 했다하면 끝을 봐요.
- 2 B: (林木에게 차를 첨잔하며)중국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네, 외국인 억양도 없고, 여기 온 지 몇 년 되었으니 여기 생활에 적응되었겠구나?
- 3 A: (?) 막 와서는 정말 적응 안 되더라구요. 아침엔 정말 일어나질 못 했어요. 수업 시간은 일렸지만 유학생들은 또 모두 잠 안 자

19) 박찬욱 <“인접쌍” 개념을 이용한 중국어 말하기교재 분석: “칭찬-반응” 구조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3권 제2호, 2009, 349쪽 참조.

- 3 A: 알았어. 고마워!) [중국어 마스터 step1, 136쪽]
- (7)
- 1 A: 行, 讓她過來吧。
- 2 B: 好的。一會兒見!
- (1 A: 그래, 오라 해.
- 2 B: 알았어. 좀 있다 봐!) [중국어교실 중, 177쪽]

예(6), (7)은 모두 전화대화로 설정되어 있는 대화문이다. 실제 대화 속에서 대화자가 “고마워”, “좀 있다 봐”하며 곧바로 ‘뚜-’하며 전화 끊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이런 경우 우리는 무례하다고 생각하거나 다시 걸어 그 연유를 물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6)에서는 ‘감사(謝謝)’에 대한 ‘거절’과 ‘인사’가 그리고 예(7)에서는 ‘인사(一會兒見)’에 대한 ‘인사’가 후속행위로 요구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연속체구조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이들 모두는 다음과 같이 미비한 행위를 보충해 주어야 하는 예에 속한다.

- (6)'
- 1 B: 當然。到上海以後叫她給我打電話!
- 2 A: 好, 謝謝!
- 3 B: 不客氣, 再見。
- 4 A: 再見。
- (7)'
- 1 A: 行, 讓她過來吧。
- 2 B: 好的。一會兒見!
- 3 A: 一會兒見!

③ 대화개시와 교재구성

대화분석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접근한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을 맺는가 하는 문제였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무턱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건네고 또 대화를 자신이 끝내고 싶을 때 일방적으로 종결하지 못 한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대화의 개시에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인사의 과정 또는 안부의 과정 등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순서를 준수하고 있는데, 다만 익명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신분확인’에 대한 절차는 인사말의 반복된 교환으로 대체되어 있다. Schegloff가 제시하고 있는 대화개시 부분의 연속체가 교재에서 모두 다 실현될 수 없다고 해도 교재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연속체가 있는데, 바로 ‘호출/응답’ 연속체이다. 일상적인 전화대화에서 개시는 항상 신호음, 즉 호출에 대한 수화자의 응답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교재에서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찬욱(2010, 표.3)은 한국에 출판된 13종 36권의 교재에 출현한 42개 전화대화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수화자 개시의 전화대화는 겨우 5개(11.9%)에 불과했다. 아래는 ‘호출/응답’ 연속체가 생략된 예이다.

- (9)
- 1 A: 喂, 您好! 您是住院部嗎?
 2 B: 是啊, 您找誰?
 ……
- (1 A: 여보세요! 입원부인가요?
 2 B: 그런데요. 누굴 찾으시죠?) [聽和說, 82쪽]

예(9)을 전화대화의 개시 연속체에 비추어 보면, 송화자가 먼저 발화하도록 대화문이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위 예는 수화자인 B가 전화 받았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데, 수화자의 수신도 확인하지 않은 채 송화자가 먼저 발화한다는 것은 실제 대화에서 흔치 않을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화자의 ‘喂’ 한 마디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9)'
- 1 B: 喂?
 2 A: 喂, 您好! 您是住院部嗎?
 3 B: 是啊, 您找誰?
 …… [聽和說, 82쪽]

교재에서는 이보다 더한 대화 구성도 보인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 (10) (王平給電視維修部打電話)

- 1 A: 師傅, 我的電視機有毛病了。
 2 B: 哪兒出問題了?
 ……
 (1 A: 아버지, 우리 TV가 고장났거든요.
 2 B: 어디가 문제예요?) [북경대 漢語口語 중, 24쪽]

예(10)은 TV수리공과의 전화대화이다. 두 대화 모두 개시와 관련한 연속체의 제시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보조지문-‘王平給電視維修部打電話’-이 없었다면 여타 대면 대화와 구분하지 못 할 정도로 대화 개시 연속체가 생략되어 있다.²¹⁾ 이와 같은 대화는 다음과 같은 부분적 수정이 요구된다.

- (10)
 →1 B: 喂?
 →2 A: 喂, 是○師傅嗎? 是修電視機的。
 →3 B: 誒, 對。
 4 A: 師傅, 我的電視機有毛病了。
 5 B: 哪兒出問題了?
 …… [박찬욱 2010, 84쪽]

④ 대화종료와 교재구성

대화 종료와 관련해서도 실제 상호작용과 어긋나는 예를 볼 수 있다. 이 역시 자연담화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 (11) ……
 1 A: ..請你, 在星期一的時侯, 保持手機的暢通。
 2 B: 好。
 3 A: 好嗎? =
 4 B: =[1好的, 好的1],
 →5 A: [1先這樣1]。 [종료전 행위]
 →6 B: [2好的2]。 [종료전 행위]
 7 A: [2好吧2]? =
 8 B: = 啊, 謝謝你[啊]。

21) 박찬욱 <중국어 회화교재의 대화문 작성을 위한 제언-전화대화문을 중심으로>: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12호, 2010, 84쪽 참조.

- 9 A: [好], 不客氣。 =
 10 B: = 好, [1再見1]。
 11 A: [1嗯:1]。
 →12 B: [2呃, 再見2]。 [종료행위]
 →13 A: [2好, 再見2]。 [종료행위]
 (1 A: ..다음 주 월요일에 전화기 꼭 켜주세요.
 2 B: 네.
 3 A: 아셨어요? =
 4 B: =[1그럼요, 알겠습니다1].
 5 A: [1우선 여기까지 하죠1].
 6 B: [2네2].
 7 A: [괜찮죠]? =
 8 B: =네, 감사합니다[다].
 9 A: [그럼], 별 말씀어요. =
 10 B: =그럼, [1안녕히 계세요1].
 11 A: [1음:1].
 12 B: [2어, 안녕히 계세요2].
 13 A: [2네, 안녕히 계세요2].) [전사 No.3]

예(11)은 라디오의 고충해결 프로그램의 종료 부분이다. Schegloff & Sacks(1973)는 대화의 종료에도 질서가 있음을 보였는데, 대화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종료전 행위(pre-closing)'를 통해 참여자간 대화종료가 동의된 뒤에야 '인사'로써 종료된다는 것이다. 예(11)도 '先這樣 - 好的'로 구성된 종료전 행위과정을 거친 뒤 '再見 - 再見'으로 종료하면서 Schegloff & Sacks가 제시한 대화종료 행위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대화종료 역시도, 대화개시의 예처럼, 자연담화의 연속체 구조가 모두 출현하리라 생각하긴 힘들다. 그러나 대화의 끝맺음에 있어 '인사'연속체는 필수적이라 볼 수 있는데, 과연 교재 대화의 끝맺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을까? 다음 예를 살펴보자.

- (12)
 1 A: 真拿你們沒辦法。這樣吧, 你們多住一天要加倍付一天房租。
 →2 B: 沒問題, 謝謝您, 王先生!
 (1 A: 정말 별 수 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하죠. 하루 거주할 때마다 방값은 두 배로 내요.

2 B: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王 선생님!
[신공략중국어 프리토킹, 114쪽]

예(12)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대화문이다.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옥신각신하는 상황인데, 결국 세입자 사정을 집주인이 수용하고 세입자가 '감사하며 대화는 끝난다. 우리는 여기서 세입자가 인사도 없이 謝謝您, 王先生!'으로 전화를 '뚜-' 끊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실제 대화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므로 예(12)는 다음과 같은 수정을 통해 원만한 대화종료를 유도할 수 있다.

(12)'
1 B: 沒問題, 謝謝您, 王先生!
→2 A: 不客氣, 再見。
→3 B: 再見。

나아가 좀 더 극단적인 예도 보인다.

(13)
1 A: 我是李英男, 麻煩您轉告他一件事兒, 行嗎?
2 B: 沒問題, 你說吧。
3 A: 去大同的火車票買到了, 星期五晚上九點半的。
→4 B: 對不起, 我沒聽清楚, 請再說一遍, 好嗎?
(1 A: 李英男이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말씀 좀 전해 주실 수 있나요?
2 B: 그럼요. 말씀하세요.
3 A: 大同으로 가는 기차표를 구했어요. 금요일 저녁 9시 반으로.
4 B: 죄송한데 잘 안 들리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신공략중국어 초급, 95쪽~96쪽]

예(13)은 부재중 전화를 대신해서 받는 상황이다. 대화문의 마지막은 '요청'으로 끝나는데, 메모를 부탁하는 사람이 요청에 불응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후과를 생각해 볼 때 위의 예가 얼마나 실제와 벗어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끝맺음은 전화대화의 '종료'를 가리키는 행위도 그리고 선행화자의 요청에 대한 '수용'행위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에는 '종료'행위에 대한 학습자의 노출을 막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 (13)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²²⁾

- (13)' ……
- 1 B: 對不起, 我沒聽清楚, 請再說一遍, 好嗎?
- 2 A: 去大同的火車票買到了, 星期五晚上九點半的。
- 3 B: 唉, 好, 等他回來, 我一定轉告他。
- 4 A: 好, 謝謝。
- 5 B: 不客氣, 拜拜。
- 6 A: 拜拜。

⑤ 기타 응용연구와 교재구성

자연담화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전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전사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말차레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차레에 넣을 발화는 일반적으로 말차레에서 화자가 행한 억양단위를 기초로 배열한다.(Du Bois 등 1993) 무엇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인가에 따라 전사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자연담화 연구의 대부분은 대화분석 방법론의 영향 아래 발전한 '전사'에 기초한다. 전사과정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의 발화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말 '하는' 데에는 정연한 문장의 나열을 통해 느낄 수 없는 감정의 기복뿐만 아니라 말 가로채기(interrupt), 말의 중복(overlap), 자기/타자 수정(repairs) 등 말차레 분배 및 쟁취, 대화의 역동적인 상호조직 과정이 구현됨을 발견할 수 있다.

대화분석 방법론에 기댄 기타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자연담화의 역동성에 주목하여 어휘의미의 변화나 통사구조의 변화, 구의 어휘화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이들은 '언어는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한다'는 기능주의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데, 언어변화의 관찰을 위해 대화분석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에 양적 연구방법까지 더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래는 어

22) 박찬욱 <중국어 회화교재의 대화문 작성을 위한 제언—전화대화문을 중심으로>: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12호, 2010, 89-90쪽 참조.

휘의미와 통사구조의 변화, 어휘화에 관련한 예를 살펴보고 교재구성이나 해석에 응용될 만한 부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어휘의미와 관련해서는 ‘好’에 대한 Miracle(1991)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Miracle은 대화분석 틀을 이용하여 ‘好’의 의미를 사회적 행위구조 속에서 고찰한 결과, ‘언약/요청행위’의 접수나 동의, ‘진술의 인지’나 ‘신체 행동의 완료’, 그리고 말차례 내에 쓰여 발화 도중 보이는 ‘의식 흐름의 변화’를 표시한다고 하였다. Miracle의 발견을 교재내용 해석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4)

- 1 A: 昌鎬, 小英邀請我們明天中午去她家做客。
 →2 B: 好啊。我們甚麼時候去?
 3 A: 下了課就去吧。
 →4 B: 好吧。
 (1 A: 昌鎬야. 小英이가 내일 낮에 자기 집으로 놀러오래.
 2 B: 그래. 그런데 언제 쯤 갈까?
 3 A: 수업 끝나자마자 가자.
 4 B: 그래.) [신步步高 초급, 104쪽]

예(14)에서는 두 개의 ‘好’가 출현하는데, 2행의 ‘好’는 1행 - A화자의 진술에 대해 ‘인지’했다는 의미로 쓰였으며 4행의 ‘好’는 3행 - A화자의 제안(요청)에 대한 ‘접수’의 의미로 쓰였다. ‘好’에 대한 의미 해석에 있어 대화분석은, 실질적인 의미, 즉 ‘우수하다, 이점이 많다’(應用漢語詞典 2000:488)는 의미가 허화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好’의 기능들을 ‘현재’ 속에서 실증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아울러 하나의 형식이 갖는 다양한 의미는, 그것이 놓여 있는 문장 자체보다는, 선행행발화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도 시사해 주고 있다.

통사구조와 관련해서는 ‘因爲’에 대한 Biq(1995)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Biq는 ‘因爲원인+결과’구조가 중국어의 전형적인 구조라는 것에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신문과 대화 속에서 ‘因爲’가 출현하는 구조를 고찰하였다. 이에 대해 Biq(1995:54)는, 신문에서는 ‘因爲원인+결과’와 ‘결과+因爲원인’이 각각 45%와 55%로 그리고 대화에서는 각각 18%와 82%를 보이며, 전형이라고

생각했던 그간의 관념과 다르게, '결과+因爲원인'구조가 사람들의 언어생활 속에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因爲'구조는 교재 속에서도 흔하게 출현한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 (15) ……
- 1 A: 這個星期或者下個星期, 可以嗎?
- 2 B: 這個星期可能不行, 他的日程已經安排滿了。因爲我們大使不在北京。他現在是臨時代辦, 很忙。
- (1 A: 이 주나 다음 주 어때요?
- 2 B: 이 주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참사관님 스케줄이 꽉 찼거든요. 왜냐하면 대사관님이 北京에 안 계셔서 참사관님이 임시로 일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바빠요.)

[신베이징중국어40 중급1, 27쪽]

예(15)에서도 '결과+因爲원인'의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Biq의 해석에 기대면 이러한 현상은 화자의 말차례의 운영과 관련이 있다. 선행화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후행화자는 '因爲'에 딸린 원인보다는 결과를 먼저 말하고 '因爲'로써 선행화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덧붙인다는 것이다. 예(15)에서도 A가 요일을 제시하며 만남을 '제의'했지만 B는 이를 '거절'하면서 A의 체면이 상하지 않도록 '因爲'로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이 같은 구조의 출현은 이유에 대한 고민을 먼저 말하기 보다는 상대 화자에 대한 반응을 먼저 하도록 하는 상호작용의 한정된 시간과도 관련되어 있다. 자연담화에 대한 관찰은 이처럼,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통사구조의 변화와 정보구조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교재 속에서 '~때문에'라는 의미로만 단어를 제시했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로도 제시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끝으로 어휘화의 예는 '知道'에 대한 陶紅印(2003)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陶紅印은 자연담화를 대상으로 '知道'에 대해 세 가지 면-목적어의 유무, 인칭대명사의 편향성, 긍정과 부정형식의 대칭성-에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知道'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50%) 유독 1인칭 대명사와 자주 호응하며(62%) 긍정보다는 부정형식으로 더 자주 쓰

인다(‘我不知道’: 64%, (我)不知道: 89%)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我不知道/(我)不知道’는 명제의미를 나타낼 때와는 다르게 약화되고 간화된 음성 현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점점 하나의 단위로 변화해가며 화자의 주관성이나 태도를 표현하는데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 중인 단위들은 실제 발화 속에서 자주 보이는데, ‘我覺得’, ‘我看’, ‘我想’ 등도 위와 같이 목적어의 유무나 인칭대명사와의 호응도 면에서 일종의 편향성을 띠며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단위로 변화해 가는 것이 그 예이다. (Huang 2003; 方梅 2005) 이와 같은 예는 그동안 원어민 화자의 말버릇으로만 치부되었던 그래서 학습자들이 학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왔던 기존의 생각에, 유창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항목일 수도 있다는 시각을 부여해 준다. 비록 원어민처럼 지속적인 삽입을 권장할 수는 없지만 학습자들로 하여금 말하기 연습을 하는데 있어 교재내용을 어떻게 띄어 읽어야 할지 그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 (16) ……
- 1 A: 反正是打工, 別太拼命了, 把自己的身體累壞了就麻煩了。
- 2 B: 我覺得找一個理想職業的關鍵是有沒有興趣。
- ……
- 3 A: 如果能找到一個既有興趣工資又高的工作就好了。
- 4 B: 我看小英的工作就挺好的。
- (1 A: 어쨌든 아르바이트 할 때는 그렇게 기 쓰며 하진 않아요. 몸이 망가지면 골치 아프니.
- 2 B: 내가 볼 땐 말야, 이상적인 구직의 관건은 흥미가 있느냐 없느냐야.
- ……
- 3 A: 흥미에다 높은 수입까지 보장된 직업이라면 좋을텐데.
- 4 B: 내 생각엔, 小英의 일이 바로 딱이지.)

[신步步高 초중급, 173쪽]

예(16)에서 제 2행에는 ‘我覺得’가, 제 4행에는 ‘我看’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둘은 의미적인 면에서 봤을 때 삭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삽입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띄어 읽기에 있어서도, 비록

교재에서는 어디에서 띄어 읽어야 할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학습자들로 하여금 ‘我覺得’나 ‘我看’ 뒤에 휴지를 두도록 함으로써 ‘화자의 태도’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분리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근거를 제공한다. 나아가 긴 문장을 통째로 제시하기 보다는 대화문 구성 시 ‘我覺得’나 ‘我看’ 뒤에 ‘,’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설명과 이해에 도움을 주어도 좋을 것이다.

3. 토론: 대화분석과 말하기교재

앞서 우리는 대화분석 방법론에 기대어 말차례, 연속체구조, 대화의 개시와 종료, 응용연구와의 연계성 방면에서 중국어 말하기 교재를 고찰해 보았다. 말차례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말차례 속에 너무 긴 발화량이 할당되어 있다는 점, 긴 발화 중간 중간 인지나 정리 기능을 하는 청자의 신호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속체구조와 관련해서는 선행화자의 발화와 호응을 이루어야 하는 후행화자의 발화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또 대화의 개시/종료와 관련해서는 교재의 대화들이, 자연담화의 개시/종료 관습과 다르게, 갑작스럽게 시작하고 아무런 인사나 예고 없이 끝내는 예가 흔하다는 점에 주의하였고, 응용연구와 관련해서는 의미나 통사상의 변화과정에 있는 예를 통해 교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외국어로서의 제 2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의사소통능력’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재의 한정된 지면을 고려한 탓일까? 그러나 한정된 지면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기존 대화문의 수정은 불과 두세 줄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보다 근본적으로, ‘대화’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교재는 그저 집필자가 구성한 연속된 표현의 모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재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최우선 기준은 ‘많은’ 양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 또는 어느 카피 문구처럼 ‘생생한’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생한 표현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은 분명 필요하나 그보다 우선하여 논의해야 할

것은, 대화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대화'에 대한 인식에 있다. 그동안 대화를 표현의 모듬으로 생각하였다면 이제는 대화를, 말의 연속 그 이상으로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둔 사회행위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대화는 정해진 결말도 없거니와 선행화자와 후행화자가 상호 발화내용을 합의한 뒤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화자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도 많다. 선행화자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후행화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맥락은 새롭게 창조되며 참여자들은 그 맥락 속에서 다시 새로운 행위 연속체, 곧 대화를 조직해 간다.

학습자들을 능동적인 대화상대로서 원어민과 소통케 하려면 위와 같은 대화의 개념이 교재대화에 녹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재대화는, 학습자들이 역동적인 실제 대화과정 속에서 상대에게 즉흥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행위 구조에 기초한 대화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화분석 방법론을 도입하여 표현에 기초한 기존의 대화문 구성을 극복하고 '인사-인사', '요청-수락/거절', '불평-동의/부정', '칭찬-접수/거절' 등 행위쌍에 기초한 대화문 구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긴 숨으로 이어지는 문장보다는 되도록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것을 배치하는 원칙은 인접쌍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또 긴 숨의 대화문을 구성할 때에는 학습자로 하여금 추임새 역할을 하는 표현을 대화 중간 중간에 삽입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표현을 배치시켜야 할 것이다. 교재대화의 개시와 종료도 실제의 상호작용에서 있을 수 없는 급작스런 진입과 종결을 지양하고 자연스런 진입과 종결을 지향해야 하며, 대화분석을 응용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문법에서 제시하는 것 이상의 '진행형인 변화'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는 급진적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어쩌면 '사용 중인 언어'를 반영할 수 있는 '말하기' 교재이기에 가능한 일일 수 있겠다.

Ⅲ. 결론

본고는 '의사소통능력의 제고'라는 외국인 교수목표의 성취를 위해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말하기 교재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기존 교재의 미비점

보완과 향후 교재 구성을 위해 제기되는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대화분석 방법론의 도입을 제시했다. 대화분석 방법론은 대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언어상호작용(talk-in-interaction)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행위쌍을 교재의 대화문 수정과 구성에 도입할 수 있도록 바탕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끝으로, 중국어교재 분석과 보완에 대화분석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대입하기 위해 향후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제안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기능주의적 시각의 지속적인 견지이다. 교재의 보완과 구성 시에는 의사소통 목적을 위해 학습자가 어떠한 기능의 발화를 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재는 '이는 대화가 아닌 하는 대화', '학습을 위한 대화가 아닌 상호작용을 위한 대화' 개념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언어지식에 대한 교육을 넘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언어기능을 '수행하게'끔 교육해야 하며 교재는 그러한 교육철학을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한 축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재는 동시대 원어민들의 언어관습과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학습자들이 소통하는 대상은 지금 현재의 원어민들이므로 교재 내용 역시 그들의 언어관습에 준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논했던 대화 구조와 진행 방식, 개시와 종료, 의미와 어법의 변화 등도 모두 그것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이 될 것이다.

둘째, 자연담화 연구와 교재편찬의 지속적인 연계 시도이다. 원어민들의 언어활동을 교재에 지속적으로 대입시키려면 교재대화의 비교대상, 즉 자연담화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교재의 대화구성 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물론 원어민들의 대화자체를 교재에 그대로 신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러므로 이 역시도 가공이 필요하겠지만, '칭찬'에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요구'에 대한 상황별 반응은 어땠는지 등 실제 언어생활에 대한 관찰결과를 기초로 교재의 대화문을 작성한다면, 그것은 원어민들과 학습자 간의 간극을 좁히는 길이 될 것이다.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일 수 있지만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분명 가치 있는 시도일 것이다.

【參考文獻】

1. 참고자료

- 김해연 <담화분석과 영어교육>: 황적룡 편 《현대 영어교육의 이해와 전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432쪽-469쪽, 2000
- 박성현 《한국어 대화 화제와 말차례 체계》 서울, 집문당, 2008
- 박용예 <대화분석과 영어교육>: 양혜순, 이성범, 이창봉 엮음 《영어학의 최근 논점》 서울, 한국문화사, 321-364쪽, 2005
- 이원표 《담화분석: 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례》 서울, 한국문화사, 2001
- 박찬욱 <“인접쌍” 개념을 이용한 중국어 말하기교재 분석: “칭찬-반응” 구조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3권 제2호, 343-364쪽, 2009
- 박찬욱 <중국어 회화교재의 대화문 작성을 위한 제언-전화대화문을 중심으로>: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12호, 71-95쪽, 2010
- 方 梅 <認證義謂賓動詞的虛化—從謂賓動詞到語用標記>: 《中國語文》 第6期, 495頁-507頁, 2005
- 朴贊旭 <制度性情景中的話語標記“好”—以電臺娛樂節目爲例>: 《中國言語研究》 第22輯, 353頁-371頁, 2005
-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 《應用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0
- 陶紅印 <從語音、語法和話語特徵看“知道”格式在談話中的演化>: 《中國語文》 第4期, 291頁-302頁, 2003
- Biq Yung-O <Chinese Causal Sequencing and Yinwei in Conversation and Press Reportage>: 《BLS》 21, pp.47-60, 1995
- Biq Yung-O <The grammaticalization of jiushi and jiushishuo in Mandarin Chinese>: 《Concentric: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and Linguistics》 27.2, pp.53-74, 2001
- Du Bois, Schuetze-Coburn, Cumming, Paolino <Outline of Discourse Transcription>: Edwards, Lampert eds. 《Talk in data: Transcription and coding in discourse research》, Hillsdale, pp.45-90, 1993
- Ford, Thompson <Interactional units in conversation: syntactic, intonational, and pragmatic resources for the management of turns>: Ochs, Schegloff, Thompson eds. 《Interaction and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34-184, 1996

- Goodwin, Heritage <Conversation Analysi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9, pp.283-307, 1990
- Huang Xuanfan <Doubts About Complementation: A Functionalist Analysis>: 《Language and Linguistics》 4.2, pp.429-455, 2003
- Hutchby, Wooffitt 《Conversation Analysis: Principles, Practices and Applications》, PolityPress, 1998
- Levinson 저, 이익환 등 역 《Pragmatics(화용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2
- Miracle <Discourse Markers in Mandarin Chinese> Ph.D Dissertation:The OhioStateUniversity, 1991
- Sacks, Schegloff, Jefferson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 696쪽-735쪽, 1974
- Schegloff, Sacks <Opening Up Closings>: 《Semiotica》 VIII.4, pp.289-327, 1973
- Schegloff <The routine as achievement>: 《Human Studies》 9, pp.111-151, 1986
- Tao Hongyin <The Gap Between Natural Speech and Spoken Chinese Teaching Material: Discourse Perspective on Chinese Pedagogy>: 《Journal of the Chinese Language Teachers Association》 40(2), pp.1~24, 2005
- Wang Yu-Fang <How Mandarin Chinese use causal conjunctions in conversation>: In Huang, Shuanfan ed. 《Selected papers from the seco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languages in Taiwan》 Taipei, Crane, pp.207-242, 1998
- Wang Yu-Fang <The information sequences of adverbial clauses in Mandarin Chinese conversation>: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27.2, pp.45-89, 1999
- Wang Yu-Fang <The preferred information sequences of adverbial linking in Mandarin Chinese discourse>: 《Text》 22.1, pp.141-172, 2002

2. 분석자료

- 박정구 등 《중국어 마스터(step1)》 서울, 다락원, 2008
- 북경외교관문화센터 저, 왕혜경 편저 《新베이징중국어40(중급1)》 서울, 시사중국어사, 2008
- 한민이 《중국어교실: 중》 서울, 넥서스Chinese, 2007
- 北京語言學院來華留學生二系 編 《聽和說》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0
- 程相文 等主編 《新步步高중국어(초급)》 서울, 시사중국어사, 2006
- 程相文 等主編 《新步步高중국어(중급)》 서울, 시사중국어사, 2006
- 戴桂芙 等 《북경대漢語口語(중급편)》 서울, 시사에듀케이션, 2002
- 劉德聯 等編著 《中級漢語口語(下冊)》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劉元滿 等編著 《高級漢語口語(上冊)》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 馬箭飛 等著, 변형우 등 편역 《신공략 중국어(초급)》 서울, 다락원, 2000
- 馬箭飛 等著, 변형우 등 편역 《신공략 중국어(프리토킹)》 서울, 다락원, 2000
- 趙金銘 等著, 김현철 편역 《중국어路下》 서울, 다락원, 2003

【中文提要】

本文의 目的在於介紹會話分析方法論和探討它爲漢語口語教材의 糾正和編寫能起哪些作用。從會話分析의 角度看, 漢語口語教材所具의 問題大體分成三類: 第一, 在於會話結構。從話輪轉移看教材會話給一個話輪分配較多의 語句, 并在一個話輪里沒出現應對形式, 從語對看教材會話常常缺少語對中後一個語句就無法構成完整의 語對; 第二, 在於會話開頭和末端。教材會話與實際相反經常直接進入本論而不以再見終了; 第三, 在於吸收互動研究結果。編纂教材不足於吸收互動研究의 觀察結果就會造成不够體會使用中의 語言現象。爲了解決這些問題, 本文主張以會話分析框架爲本去考慮爲編成良好의 教材應該怎樣設計會話의 開頭和末端、話輪、語對、教材注解等, 并以它爲本去彌補以往의 教材缺陷而提高今後의 教材質量, 使教材會話不從實際離得遠, 使學習者能夠體會到漢語母語者의 語言使用規約。

【主題語】

會話分析, 互動, 自然話語, 口語教材, 話輪轉換, 會話結構, 會話開頭, 會話結尾

투고일: 2010. 11. 13/ 심사일: 2010. 11. 20~12. 9 / 게재확정일: 2010. 12. 15

